

서울대병원 농성 장기화 조짐

병원측 76명 대기발령 조치

서울대학병원측이, 지난 22일 조합원 윤봉자(36·여·급식과)씨에 대한 부당인사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급식과 노조원 85명중 41명을 대기발령한데 이어 24일 농성장을 빠져나온 9명을 제외한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와 관련 노조(위원장 김유미·30·여)는 24일 서명작업과 진상 보고대회를 갖는 등 병원측에 '공정인사 확립'을 요구하며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교섭중이나 병원측이 계속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 10월부터 있을 91년 임투를 앞두고 농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김유미 노조위원장과 윤봉자씨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24일 상집부서 50여명도 철야농성에 들어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지난 17일 병원측이 농성노조원들을 업무방

해 등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경찰의 출두요구에 불응하기로 하고 20일 병원측의 ▲3급승진시험지 유출 ▲친·인척 인사비리 ▲조합원 블랙리스트작성 등 비리에 대해 청와대 특별사정반과 검찰청 등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노 90.9.28



부당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중인 서울대병원 급식과 노조원들